



광주교통공사, 풍수해 대비 특별 안전 점검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여름철을 앞두고 호우 및 강풍 등 자연 재난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도시철도 주요 시설물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이번 점검에서는 국지성 집중폭우에 대비해 지하 역사 빗물 유입 방지 물품 관리 상태, 대용량 엔진 펌프 작동 실태, 강풍으로 인한 낙하 위험물 관리 현황 등 현장 시설물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예방 활동을 펼쳤다.

공사는 오는 10월까지를 하절기 집중 안전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분야별 점검 계획을 수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조익문 사장은 "갑작스러운 이례 상황 발생에 대비해 언제나 선제적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전남농기원-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협약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농식품 분야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농식품 분야의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인프라 공유 △민간투자 유치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해, 청년과 지역 중심의 유망 농식품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김덕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은 "전남농업기술원과 함께 청년 식품기업을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15-16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사진)

이번 워크숍은 '5·18민주화운동 45주년'과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과 연계해 인권보호관협의회 의장도시인 광주에서 개최됐으며, 전국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소속 인권보호관들이 지방정부 인권구제기구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첫째날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개회식과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어 지역별 인권 현황을 공유하고 차기 개최지 선정 등을 논의했다.

둘째날에는 '인권정책기본법(안)과

지방정부의 대응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인권정책기본법안과 지방정부의 대응전략' 발제와 함께 참석자들은 인권보호관 제도의 법제화 방향, 지방정부 인권기구의 독립성 확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인권도시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공동 행동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

전진희 상임인권옹호부장은 "이번 워크숍은 지방정부 인권보호체계 강화와 전국적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광주는 앞으로도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는 중심도시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일곡청소년문화의집, '오월 담은 주먹밥'

광주광역시 일곡청소년문화의집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지난 17일 지역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오월 담은 주먹밥'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980년 5월, 시민들이 주먹밥을 나누며 보여준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총 5팀이 참여한 행사는 '5·18민주화운동 바로 알기', '주먹밥 만들기 체험', '의미 나누기 발표', '주먹밥 나눔' 순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각자 주먹밥에 담긴 의미를 발표하고, 서로의 음식을 나누며 공동체의 정을 느끼는 시간을 보냈다.

김효정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청소년들이 역사를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지역과 공동체를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



북구, 금호타이어 화재 이재민 구호품 전달

광주광역시 북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대피한 인근 주민을 돕기 위해 총 1200여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을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사진)

지난 17일 광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지역 주민 160여명이 광주여대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함에 따라, 북구 관내 기업과 단체의 후원을 받아 이재민을 위해 생활필수품 중심의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

북구는 △마스크 2800개 △컵라면 1100개 △간편간식 500박스 △구호텐트, 모포 등 총 12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긴급 투입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화재가 완전히 진압돼 인근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길 바란다"며 "갑작스러운 화재로 큰 불편을 겪은 광산구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광주노동청, 전국 최초 '국민내일배움카드 서포터즈'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광주고용센터에서 대학일자리센터와 손잡고, 전국 최초로 '국민내일배움카드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사진)

이날 발대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의 인지도 제고 및 청년들이 고용센터를 친근하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홍보 강화를 위해 기획됐으며, 지역내 대학생 14명이 서포터즈단으로 위촉됐다.

발대식에는 위촉장 수여를 비롯해 제도 이해 교육, 콘텐츠 제작기법 강

의, 고용센터 탐방 등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서포터즈단은 향후 온라인 콘텐츠 제작, 캠퍼스내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활용 사례와 혜택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직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청년 서포터즈의 창의적인 활동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더욱 친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광주조달청, 지역 중소기업 '에스이디' 방문

광주지방조달청은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에스이디'를 방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생산 현장을 둘러보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진행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사진)

주식회사 에스이디는 스마트팜, 환경 에너지 솔루션, 자동화 제어시스템 분야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팜 분야에서 IoT(사물인터넷) 기반 센서와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해 농작물의 생육 환경을 최적화하고 농업 생산성과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공급하는 전문 제조기업이다.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리셋하고,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들이 조달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기독병원, 구급대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광주기독병원은 최근 광주광역시 동남권 구급대원의 119 구급대원 역량강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사진)

지난 18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공의료본부 주관하에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광주 남구·동구·북구 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 16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광주기독병원 간호부 권미정 과장이 '구급대원을 위한 감염관리'의 주제로 심도 있게 진행했다.

광주기독병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구급대원들이 감염 관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돕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공공의료본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샤이니, 데뷔 17주년 싱글... 故종현 작사·작곡 참여

그룹 샤이니가 데뷔 17주년 기념일인 오는 25일 0시 새 싱글 '포에트 | 아티스트' (Poet | Artist)를 발표한다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19일 밝혔다. (사진)

이번 싱글에는 동명 타이틀곡과 수록곡 '스타라이트' (Starlight) 등 2곡이 수록된다.

타이틀곡 '포에트 | 아티스트'는 메인 테마인 보컬 선율에 스네어(악기의 일종)와 레게 리듬을 가미한 일렉트로 팝 장르 곡이다.

지난 2017년 세상을 떠난 멤버 종현이 샤이니를 위해 작사·작곡에 참여한 노래다. 시인이자 예술가로서 문학적,



시적 허용을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일상에도 적용해 틀을 깨고 새로운 것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새 싱글은 음원 공개 다음 날인 26일 실물 음반으로도 발매된다. **연합뉴스**